

## 警友人의 자세

—— 전 창 식 (本誌 논설위원)



「국가와 경찰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라는 가치를 높이 들고 120여 만 명의 거대한 힘의 탄력체가 보다 강한 국가 조성의 일익을 안고 돌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존의 수 많은 정치·사회단체들의 시선이 전에 없었던 나름대로의 의구심을 갖고 경우회의 치닫는 방향을 응시토록 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폐일언하고 새로운 태풍의 눈으로 주변의 모든 이목을 집중케 한 거대한 폭풍임에는 틀림없다.

아울러 이같은 희망과 기대를 어떻게 충족케 나아가갈 것인가 하는 책임은 의당 경우회의 몫으로 부하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하여 재향경우회 총수具弘晷 회장은 「민주적이고 겸손한 자세」라는 주축 아래 ①국가안보를 위한 단결, ②조직 활성화와 위상제고, 그리고 전·현직간의 실질적 유대 강화, ③일반 행정기관·단체와의 협동을 통한 자체발전기획 등을 요목으로 천명하고 그 성공적 방안으로 매사에 지성인다운 겸손을 강조한 점에서 주변으로부터 긍정성 있는 공감을 얻고 있다. 실상 일반국민들이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는 소박한 목표는 갈망당하지 않는 인간다운 인격존중인 것이다. 이것을 “민주적이고 겸손한 자세”라는 지극히 타당성 있는 압축된 어휘로 표현한 것은 지루한 설명을 배제한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신선감을 안겨줬다는 점에서 가능성 있는 상쾌감을 부여한다.

실상 오늘의 경우회 구성요체는 전

문적인 경찰교육을 이수한 지성인들의 모임체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우인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확실히 남다른 측면에서 비판적일 수도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보편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직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인권·신뢰·정보에 대한 채점점은 그다지 후한편이 못 되었다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벗어난 오늘의 전직인 경우인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는 어떠한 색채가 교차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게 오늘을 맞는 경우인의 절실한 몫이며 책임이다.

과연 전문교육을 이수한 지식인들의 결합체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분명 예상해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구한다면 현직 때의 실점을 오늘의 전직에 와서 만회할 뿐만 아니라 보다 우수한 등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욕망이다. 지성인답지 못한 비인사적인 행동으로 국민으로부터의 지탄을 받는 등, 그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휴란간 지난날의 역사 속에서 이른바 국민 방위군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굳이 되새길 바는 못 되지만 때로는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각심에서 회고의 대상에서 참여의 의지가 필요하기도 할 것이다.

사람의 감정에서 가장 많이 중요감이 분출되는 경우는 신뢰 속에 기대했던 사안을 배신당했을 때이다. 이제 출발의 합성을 포효한 경우회의 앞날을 어떻게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 유도할 것인가는 유능한 지성인들로 계속된 오늘의 경우인들의 정의롭고 굳건한 자세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존경하는 검사님, 申聞鼓를 두드립니다!

—— 손 기 태 (일산 경우회 부회장)



저는 말단 경찰 공무원으로 약 10여년 전에 정년퇴임한 70의 고희에 이른 사람으로 소개드립니다. 지금부터 약 2년 6개월전 경찰청이 2003.1.15로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시 경찰 수사권독립(안)에서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수사권의 주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개정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는 동법 제196조를 “검찰과 경찰은 상호협력과 경쟁관계에서 수사한다”로 개정하는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검찰은 이를 매우 시니컬(cynical)하게 받아들이며 동년 1. 16 법무연수원에서 “수사지휘론”이라는 검사교육용책자를 건

급히 발간, “막강한 무장인력, 조직, 권한을 보유한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견제장치 없는 강력한 기관이 돼 경찰 파쇼화 할 우려가 있다”고 과민, 왜곡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또, 검찰은 수사경찰을 일반경찰에서 분리, 법무부 소속으로 이관시켜 검사지휘하에 범죄수사를 전담토록 하자는 방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혹시 경찰청의 수사경찰위원을 검찰청의 정원으로 아예 편입시켜 버리자는 취지는 아니었을까요?

또, 검찰은 경찰의 자질문제를 거론하였 습니다만, 이는 1981년 개교 후 서울대와 맞먹는 수재들이 4년제 경찰대를 통해 해마다 120여명의 고급인력들이 배출돼 그간 인구에 희사되었던 노예조항을 묵묵히 감수하면서까지 전국 240여개의 일선경찰서 수사, 형사업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심지어 경찰서장까지, 또는 그 이상의 중요직책을

## 名士칼럼



우주 만물은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법칙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나 민족이나 집단이나 사회도 정해 놓은 질서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다. 질서가 흔들려 무질서한 혼돈사회가 된다면 정의도 도덕도 윤리도 엉망이 되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질서가 모든 것을 우선한다고 이야기한다. 무질서한 사회에서 정의로운 것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질서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찾기가 쉬운 것이다.

가정을 즐겁고 평안하게 잘 이끌어 가려면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본이 되는 부모의 권위가 정착되어 있어야 한다. 부모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무질서한 가정에서 즐겁고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자식들이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드리고 효를 할 때만이 그 집안의 미래가 밝게 보이는 것이다. 결코 자식들은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부모는 또 자식들을 도우려는 분위기가 체질화 되어 있을 때, 그 가정은 질서 속에

말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이미 사법, 행정, 기술고시합격자도 약 60여명 되지요.

그로부터 약 2년 6개월 후인 지난 2005. 6. 14.

검찰이 의도적(?)으로 작성하여 국회 법사위소속 여야의원들의 의원회관사무실로 송부한 “검, 경수사권 추진현황”의 내용은 모두가 부끄러울 정도로 원색적인 경찰비난일색의 흑색문구가 들어있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는 불안정한 정치체제유지를 경찰권에 의지하고 경찰력의 확대를 후원했다”, “정통성이 부족한 정권수호의 이익을 담당한 경찰권은 비약적으로 팽창했다”, “식민지 수탈도구였던 경찰, 독재정부 지켜주고 팽창, 인권침해 첨병” 등등 검찰이 자기얼굴에 점 찍는, 경찰로서는 너무 힘들었던 인격적인 모욕의 내용이었 었지요.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해도 너무하시니까 한 말씀 드리지요. 951억 원 불법비자금 조성혐의로 지난 6월에 구속 수감한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은 한 달전인 지난 5. 28 검찰이 무혐의로 내사 종결, 끝내버렸던 사건 아닙니까?

검찰이 명예를 걸었던 전 문공부 박지원 장관의 현대비자금 150억원 수사사건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세인의 이목을 받아가며 검찰이 자신민만 기소했던 전 민주당 박주선 의원, 인천 안상수시장 등 총 9명의 정치인관련 소위 검은 돈대 대형수뢰 사건들이 지난 5월에서 6월 사이 대법원 또는 항소심에서 모두 출졸이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검사님들이 자신이 수사, 기소한 사건이

서 잘 되어 갑 수밖에 없다. 학교에는 교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질서 속에 할 수 있다. 우리는 요즈음 교관이 흔들려서 학교가 어수선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시한다면 선생님이 무엇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인가? 있어버릴만 하면 우리는 학생들이 총장실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소식을 자주 듣게 된다. 이렇게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학이 세계적인 우수한 대학이 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한다.

국가와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국가에는 공권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공권력이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여 주므로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가끔 공권력이 잘못되어 혼란한 사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된다. 공권력이 흔들리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나 사회가 선진국이다. 공권력이 무기력한 나라들은 항상 사회가 혼란 속에서 발전하지도 못하고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요즈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공권력이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것 같다. 파출소의 기물을 파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경찰을 우

무죄선고가 난다는 것은 자신들의 경력에 크나큰 흠결(欠缺)이 아닐 수 없으며 부정부패와 사회악 척결의 첨병(尖兵)이라는, 검찰로서의 존재가치(存在價值)가 산산이 허물어지고 있는 치명적인 상황인데도, 티끌만한 증거라도 찾아내는 수사기법의 개발에 더욱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검찰지휘에 따라 수사 또는 보조하는 수하(手下) 경찰들의 몸담은 조직을, 같은 국가기관을 “식민지 수탈도구...”, 정통성이 부족한 정권수호 일익담당...”이라고 최소한의 품위도 잊은 채 사돈이 남발하듯 몰아붙이는 검찰의 모습을 인생 70, 연륜(年輪)으로 정관(靜觀)하면서 어쩌다가 저렇게 검찰이 저락(低落)했을까? 심히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 그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검찰이 현재 형사소송법의 뚜렷한 근거와 규정 없이 형사사건의 약 97%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많은 학자들은 위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권침해 위험요소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에 일정부분 수사권을 주는 쪽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다수의 여론이며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이제는 거역할 수 없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찰 60년의 소박한 꿈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편익을 기준으로 차제에 존경하는 검사님들의 고뇌에 찬 사고(思考)와 결단으로 절대적 강자가 지나신 많은 아랑. 많은 도움을 저희들 경찰에 답록 베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질서는 모든 것을 우선한다

### - 공권력 도전행위 엄벌하는 분위기 조성되어야 -

—— 송 자 (한국사이버대학교 총장)

습게 보고 담비는 사람도 있다. 경찰을 무서워 할 필요는 없지만, 질서를 지키고 있는 경찰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사회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혼란 속에서 그 국가나 사회가 발전하였다는 이야기는 한번도 들어 본 일이 없다.

얼마 전에 괴한들이 순찰중인 군인들을 위협하고 총과 실탄을 빼앗아 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사회는 지금 매우 혼란스럽고 질서가 지켜지고 있지 않는 사회라는 것이다. 경찰이나 군인에게 담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는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속히 공권력을 지키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엄벌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정비하지만 도덕적으로도 공권력을 중요시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들의 경찰과 군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하는 일을 고마워하는 풍토를 빨리 조성하면 조성할수록 우리 사회를 즐겁고 평안한 사회

로 만들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경찰이나 군인들이 업무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선진국일수록 그들의 삶과 수고를 잊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경찰이나 군인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다. 우리도 하루속히 우리의 경찰과 군인들이 대접받는 문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들이 무기력해지면 우리 사회는 희망을 잃게 된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구경꾼이 되지 말고 참여하자. 이것은 결코 권위주의 정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평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필수적인 것이다.

공권력이 버티고 서 있는 안정된 나라가 희망도 있고 미래가 있다. 공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경찰과 군인들에게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 질서 속에서 정의사회도 실현되고 경제도 발전한다. 질서를 지키는 공권력을 소홀히 생각하지 말자. 질서는 모든 것을 우선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 “人間 安保”

—— 權 鎬 永 (警友會 前 홍보부장)



금지속에 微力한 힘을 보태오다가 자연인의 한사람으로 돌아와 그동안 소원했던 친구들과 樂山樂水하면서 제약된 생활에서 벗어나 모든 愁念을 잊고 自由奔放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모르겠다.

요즘은 모두가 하나같이 苦痛속에서 참고견디는 어려운 환경속에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와 모처럼 만나 옛향수가 깃든 서대문 경찰청 뒷골목에 자리한 “영양탕”집을 찾았다.

때마침 중복날이라 많은 사람이 자리한 가운데 한구석을 차지하고 11년 전에 떠난 경찰청 시절에 얹힌 이야기를 話頭로 많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제 직장에서 나오니 별로 할 일은 없는데 왜 이렇게 바쁘지 모르겠다”고 하자 한 친구의 말이 “이제 失業者가 되었으니 失業者는 過勞死를 조심해야 한다”고 하면서 너무 시간이 많다고 여기지기 쫓아다니다 보면 건강을 잃게 된다는 충고를 잊지 않았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실업자의 과로사”도 문제지만 너무 건강을 챙기다 보면 “재수없으면 100살까지 사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농담을 하면서 건강도 중요하지만 많은 친구와 어울려 浩然之氣를 즐기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지름길이라는 지론을 폈다.

이렇게 시작한 건강과 여가선용의 방법을 놓고 감론을박 하다가 “국가안보”를 전적으로 알고 봉직했던 우리 경찰인들은 퇴직 후 부터는 “인간안

보”를 위해 사력을 다해야 된다는 논리로 비약했다.

즉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보를 건강에 접목시켜 질병 예방을 위한 더 많은 시간과 경제적 투자 그리고 꾸준한 노력으로 “인간안보”의 방어벽을 튼튼히 쌓아야 된다는 것이다.

건강은 이제 우리 퇴직자가 모이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제일의 話頭가 되고 있다.

중앙회가 있던 녹면동의 어느 약국 밖에 붙여진 건강표어에 첫째가 정신 건강이요, 둘째가 섭생이며, 셋째가 藥이다. 리는 글귀를 보고 명언중에 명언이라 생각했던 기억을 하면서 퇴직자는 정신적으로 좌절감을 갖게되는 강박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안식처를 찾았다는 자신감을 갖는 정신자세가 가장 중요하며,

출퇴근하던 규칙생활과 식생활의 패턴을 잃지 말고 먼저 하루의 식사량은 아침 점심 저녁을 2:3:1의 비율로 하고 술과 육류를 피하고 저녁 7시 이후는 음식섭취를 금하는 攝生을 몸매 베이도록 하면서 藥은 가급적 피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인간안보”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빌어 저가 警友會 재임하는 동안 격別한 사랑과 후의를 베풀어주신 선후배와 동료 그리고 『警友新聞』을 사랑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끝으로 우리 警察人 모두에게 구심력을 심어 주면서 前·현직간 架橋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警友新聞』에 대한 애정 번치마시고 언제나 隔意없는 忠告와 좋은 敎訓 下敎하여 주시면서 밝고 맑은 마음으로 激勵해 주시면 남은 생의 旅程에 尊敬心を 더욱 두텁게 쌓아하는 機會로 삼겠습니다.

그동안의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경우신문 기고문은 이렇게!

時論, 提言, 독자의 소리 등 경우신문에 기고하실 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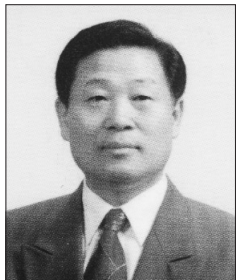
경찰발전이나 경우회 활성화 등 전현직 경찰과 관련된 내용을

200자 원고지 8매이내(A4용지 기준 2장이내 =글자급수 14포인트)로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왜 우리만 일제잔재인 검사 지배적 수사구조인가?

—— 김 광 웅 (중앙회 감사, 전주중부경우회장)



떨어야 하는 새로운 사회적인(social)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만 표출의 수단으로 무작위 살인, 방화, 성폭행 등 극악스런 범죄가 마치 흑사병처럼 번져가는 오늘의 사회병폐에 수사기관(검·경)에서는 범죄소탕과 사회정화 풍토에 온 힘을 다 하여야 할 때에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문제로 밧고트

싸움이나 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어 우울한 감을 금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의 구조는 세계적으로 수사의 주체와, 기소의 주체가 분리돼 있고 공판중심주의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유독 우리만이 일제의 잔재인 검사지배적 수사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과연 이대로 존속되어야 하는 것인가에 국민들은 심히 우려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현실의 수사체제는 법상 경찰조서는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없어 동일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또다시 조사함으로써 자칫 인권침해 문제와 당사자의 이중적 고통을 겪게 되는 문제점과, 형사소송법 제222조 변사자 검시에 있어서도 사인(死因)이 밝혀졌으나 검사의 수사지휘가

없는 한 사체(死體)를 유족에게 인도할 수 없어 유족들의 강력한 반발과 항의 등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국민의 불만이 점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범죄사건 취급에 있어서도 97%를 경찰이 수사하고 그중 70%이상을 경찰의 조사 의견대로 처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는 검사의 목적이 아니라 수사권을 검·경이 분권하여 상호협력관계를 공유한다면 치안환경은 크게 개선되리라 믿는 것이다.

이로써 검찰은 최근 철도청의 석유사범 등 국가적이고, 정책적인 대형사건, 고위층의 비리와 부조리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는 데 전담하고, 기타의 사건 등에는 경찰이 수사권을 발동,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요즘 매스컴에 의하면 정치권, 대기업, 공무원 등 모두에 이르기까지 고위층의 비리 부조리는 그 도(道)를 넘고 있어 국민들은 크게 식상해 하면서 현 법률적 상태로서는 경찰과 검찰의 이중적 조사 방식은 국민의 불편과 인권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여론이 크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와중에서도 일부 기관은 무풍지대(無風地帶)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도 균형과 형평의 원칙하에서 상호 견제하는 작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권 분권에 국민들은 크게 기대하고 있다.